

Izabel Lam

이자벨 램



차량을 씌운 벽걸이물 쫓대



이자벨 램

이자벨 램은 처음 인테리어 디자인 관계의 일을 했다. 학비를 벌기 위해 홍콩에서 한창 성업중이던 공장에서 미국산 직물의 생산을 감독하는 일을 했는데, 많은 디자인들이 당시의 직기기술에 적합하지 않아 나름대로의 새로운 패턴을 기미했다. 그런데 그 직물이 뉴욕시장에서 신문을 일으켰고 이를 들은 파슨스 스쿨 학장은 장학금을 제공하게 되었다.

뉴욕에서의 학창시절 그녀는 패션 디자이너 겸인 플라인에 관심이 많았고, 뉴욕 7번가의 드로잉관들을 보면서 디자인 이론을 실제의 의복 라인에 적용시키기도 했다.

파슨스를 졸업하면서 그녀는 '올해의 학생'으로 뽑혔고 조프리 빈(Geoffrey Beene)의 디자인 디렉터가 된다. 또 자신의 기성품 라인을 시작하고 80년대 중반부터는 장신구도 시작했다.

세계 곳곳의 미술관이 그녀의 작품을 장식미술 분야의 새로운 소장품으로 추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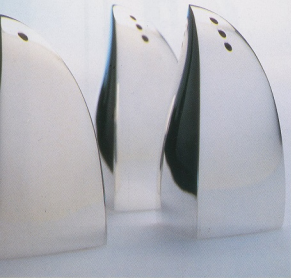
Izabel Lam

Early on Izabel Lam tried her hand at interior design. She spent her spare time earning school money by overseeing production of American designed fabrics for Hong Kong's booming mills, many of the designs were not practical for the looms of the day, so she created her own patterns in the style of the original. The resulting fabric took the New York market by storm, the head of the prestigious Parsons School of Design heard about her and offered a scholarship.

Through the school years, Izabel caught the eye of fashion designer, Calvin Klein. On the drawing boards of New York's Seventh Avenue, she began to put design theory into the reality of a clothing line.

Upon graduation from Parsons, she was selected 'Student of the year' and appointed Design Director to Geoffrey Beene. Subsequently, she started her own ready-to-wear line and added jewelry design in the mid-eighties.

Museums around the world are adding Izabel Lam artifacts to their decorative art collections.



부드러운 파도 모양의 소금과 후추통



현무암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거울용 틀



주교관(主教館) 모양의 램프



축수 모양의 대상단 셋더

디자인
월간

MONTHLY DESIGN



1978-1998
대한민국을 열었던 20주년
월간디자인 창간 20주년

199603



달 모양의 귀걸이



선호 모양의 목걸이



해인의 골보라 모양의 팔찌



버드나무 모양의 귀걸이



나르시스 반지



조약돌 모양의 팔찌

나 는 따뜻한 색상과 부드러운 느낌이 좋아 브론즈를 선택했다. 금속을 만지면 생명력과 운동감, 예술적인 미완이 느껴진다. 현재는 이 느낌을 스테인리스로 재현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나는 내가 '하늘' '바닷가' '물결'을 창조할 때 그랬던 것처럼 소비자들도 이것들을 즐겁게 사용하기 바란다.

이자벨 램의 브론즈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식탁용 집기류는 낙하 단조법(drop forging)이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대공기법으로 만들어진다. 이것이 입체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그녀의 디자인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그녀는 바다에서 영감을 얻는다. 스쿠버 다이빙이기도 한 그녀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해저공원에 들어가 다음에 제작할 주얼리, 새로운 패턴의 포크와 나이프에 대한 영감을 얻는다. 어린시절 그녀는 태풍 속에서 미친듯이 날살거리다가 어느새 평온하게 가라앉은 하늘 바다를 보며 자랐다. 물의 흐름과 움직임이 그녀의 첫 디자인 선생님이었다.

그녀는 물의 흐름과 움직임, 바다의 산물들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 불가사리는 새로운 모델의 컵으로, 흙이 파인 산호는 침대 옆에 놓는 램프모, 모래언덕은 이국적인 목걸이로 바뀐다. 조류의 변화는 새로운 창조물감을 제공하며, 비규족과 미완성은 이자벨의 작품이 지닌 특징이다.

그녀의 수성표현주의는 뉴욕 해변가의 스튜디오에서 비롯되었다. 그녀는 매일 길이의 조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싸운다. 저녁이 깊어지면 그녀는 개를 데리고 수평선 너머 미지의 세계를 꿈꾸며 해변을 산책한다. 뉴욕의 항구는 그녀로 하여금 고향 항구를 회상하게 하며 그녀가 지독한 항수병을 앓지 않게 해주기도 한다. 집단하게 많은 인종이 섞여 있는 맨해튼은 그녀의 창조력에 핵방향을 불어 넣어주었다는 점에서 공헌을 하기도 했다. 서구의 개념들이 동양적 사고 속으로 자연스럽게 융화되면서 그녀의 창작세계를 더욱 폭넓게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이자벨 램의 물의 예술) 중에서 ♪



I choose bronze for its warm color and soft feeling. Touch the metal; it is full of life, movement and artistic imperfection. Now, we have found a way to reproduce this feeling in stainless steel. I hope you enjoy using Sphere, Shore and Stream as much as I did creating them.

Izabel Lam's bronze and

Stainless Steel cutlery are produced by the traditional, blacksmith-like method called 'drop forging'. This allows the three 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her design to come to life.

She gets inspiration from the sea. Being a scuba diver, she plunges into the under water park beyond the touch of humans and gets the inspiration for the next delicate piece of jewelry or a new pattern for forks and knives. Childhood was views across fast moving stretches of water, of typhoons, then suddenly tranquility. Flow and movement were the first lessons of her design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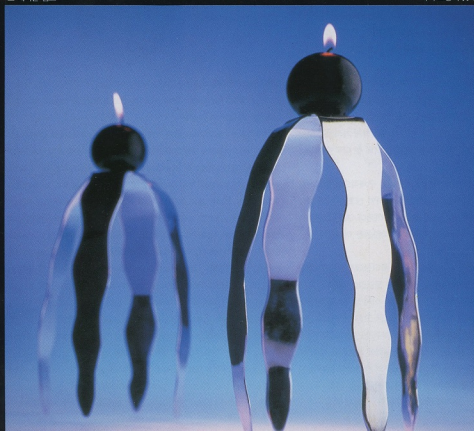
She continues to metamorphose the stream, movement and creatures of the sea to a real, practical objects. A starfish models for a new series of glasses; fluted coral becomes a bedside lamp; a sand dune is transformed into an exotic necklace. The change of the stream gives her the stream of creativity, irregularity and imperfection authentic the work as an Izabel Lam original.

The Artist's waterfront studio in New York has become the home of Aquatic Expressionism. Each day, she struggles to realize the harmony of the deep. As evening falls, she walks with her dog along the water's edge, dreaming beyond the horizon. Taking up life on New York's harbor reminded her of another harbor and kept her from being too homesick. The melting pot of Manhattan unleashed her creative spirit. There Western concepts flowed freely into her Eastern mind. / Excerpts from <The Liquid Art of Izabel Lam> ♪



▲ 테이블 램프

▼ 나지 모양의 촛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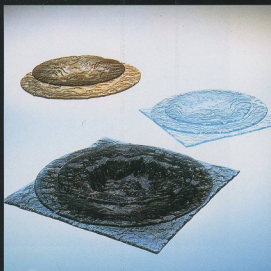
고요한 바다 이미지의 팽귁 테이블



솟아오르는 바다 모양의 테이블



바깥에 소용돌이치는 바다에서 착안한 디너웨어



어선의 밑줄을 형상화한 디너웨어



이기 해가 모양의 스푼 세트



물결 모양의 식탁용 집기류